

이규성의 동학사상 연구

A

2005 최시형의 표현과 시간, 한국학 논집

2011 최시형의 철학, 이대 출판부

-2005 논문과 추가로 해월신사법설 번역 포함

2012 한국현대철학사론 1장 표현과 개혁: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김기전

-2005 논문에 더해 7장 영적 코뮌리즘과 8장 표현의 정치학을 추가하고, 9장 창조적 진화와 자유, 10장 대지의 철학 선언과 본위론에서 이돈화와 부분적으로 김기전을 추가로 덧붙였다. 11장 결론은 2005년 논문의 결론을 핵심으로 하고, 결말에 함석헌 부분을 추가.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각 장 별로 정리해 보자. 반복되는 이야기는 가능한 한 배제, 각 장에 독특한 부분만 정리했다.

전체적으로 생명의 원리, 이 원리를 체화한 성령, 사물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연대성, 소통성, 그리고 소통성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 마지막으로 개혁을 위한 정치적 실천을 다룬다.

이규성의 사유는 푸코가 말한 시적 상상력, 즉 유사성을 따라 넘쳐 흐른다. 서양철학에서는 스피노자, 베르그송, 니체 등으로. 동양철학에서는 이학과 심학 등으로, 합리주의적인 유물론이나 기학과 같은 우연성의 철학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현.

B 최시형의 철학

1)

기본관점:

-최제우는 기존 언어의 시간적 재생을 통해 진실을 창조.

지식인집단은 세련된 체계적 개념체계를 갖지만, 문화권력의 공허한 상징이 되어,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혁신하기에는 그 경직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민중이나 체제 주변의 빈한한 지식인이 문제를 떠맡게 되었다.

이는 중국 근대와 유사

태평천국의 난->증국번(성리학자)->장지동(동도서기론)->위원(서양의 공화제에 관심)

최제우 역시 동도서기론의 한계를 넘어서 서양이 군사기술과 도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했다.

자신의 전통적 언어에 새로운 경험과 진실을 담아내는 창조적 계승을 모색했다.

<최재우 생애에 관해서>

몰락 구족의 후예, 전통 유교적 교양을 습득

정치적 예언서인 참위서를 잘 알며, 천주교도 접한 것으로 보인다.

선도의 내단술을 통해 우주적 생명과 감통

조선 후기 반란기, 정감록 등 비서의 출현->도피처를 모색

최: 궁궁은 도피처가 아니라, 이상향이며, 천도의 자취에 관한 도상

궁을은 약동하는 우주 생명 원리의 흐름을 모사한 형상(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동시에 심성의 생동성을 의미.

<최시형 생애에 관해>

22세 집강, 35세 최제우를 만나 자기 수련, 이후 강론 설법에 나섰다. 역사적 사회와 만났다.
극기명상을 통해 자기 변형의 노력, 사물에 편재하는 지극한 기운을 감응하여, 느낌과 소통의 능력을 발휘.

투시적 감응과 치유를 했다.

추방자의 삶,

<동학의 주요 사상>

-안으로 개체의 활력이 자주적으로 표출되고,

밖으로 다른 생명체들과의 우주적 연대성(수평적 소통체계)을 자각, 새로운 삶의 형식이 되면, 사상의 개혁은 역사적 개혁이 된다.

-무극대도는 우주에 내재하는 신성한 실재, 만유를 변형하는 생명 원리,

개체들은 이 원리를 통해 유기적 소통의 관계를 형성하며, 조화의 세계와 평등한 연대를 이룬다.

역사도 평등한 연대적 관계를 회복. 후천개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자유는 정치적 항쟁을 통해 실현된다

-자신의 마음을 우주의 생성에 조율하는 노력을 통해 고요한 안정성과 포용성에 바탕하여, 외부 사물과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

-이는 일상의 감각주의에 몰입하는 경향성을 벗어나 사물과 대립을 극복하는 마음이다.

이기적 경제인이나 권력자의 고체화된 자아를 파괴하는 극기의 노력 즉 심령이다. 이는 곧 만유의 끝없는 흐름을 통관하는 우주적 자아.

자기변형이라는 수련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공적 원리의 주체적 토대를 마련한다.

-만유의 근원, 생명 원리, 현상은 그 表顯

하나의 기,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생명성

현상은 근원적 하나에 내재하고, 근원적 하나는 현상에 내재한다.

한울의 임재, 절대적 顯存

-약동의 활발성을 지닌다. 모든 개체를 서로 내적으로 연결하는 감응성을 가진다.

감응적 소통성, 관류하여 융통하는 연속성과 소통성

천지만물의 融和相通

和의 즐거움

재생, 新生

-생명의 진리가 새로이 전개되는 개혁의 과정,

각자의 생명의 활발성과 평등한 유대가 도래. 후천 개혁 시대

-객관적 진리가 아닌 **주체적 진리로** 다가오는 열망의 진실.

전인격적 투여와 열망에 의해 지지되고 글새 눌러진 희망을 각성하는 영감에 의해서만 소통되는 진리이다. 심정의 감격과 정열에 의해 전달되는 진리, 이것의 철회는 생의 핵심을 파괴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그러므로 화형을 당할지라도 취소될 수 없으며, 역사 속에 나타나 시련과 저항을 통해 빛을 발한다.

[생명의 원리는 세계에 자시를 표현 즉 범신론적, 직접 체험과 체화 즉 성령, 또는 주체적 진리, 생명의 활발성과 기쁨, 타에 대한 개방적 연대와 소통 즉 평등성, 이에 기초한 후천 개혁, 대립의 세계를 극복

2) 능동적 신비주의

이돈화, 新人철학, 천도교 중앙부, 1930

베르그송, 스피노자의 영향으로 한울을 진화론적 원리로 해석, 역사주의와 주관주의를 비판

역사주의

노태구, 동학혁명의 연구, 박산서당, 1982

개인주의적 자기구제의 범주는 일체의 사회윤리와 무관, 다만 급진적 샤머니즘적 요소를 제거하면 동학이 민족적 정치이념의 창조적 원천이 될 수 있다.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일조각, 1993

민란의 흐름에 조직과 사상을 주었다. 그러나 종교와 역사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일철, 최해월의 범천주의 세계관, 한국사상 24,

동학의 종교 윤리는 탈주술화되고 세속화된 근대 산업사회의 세속윤리

그러나 동학은 오히려 이런 시대를 능가하고자 하는 사상적 요소를 갖는다.

#주관주의

저항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실천을 간과. 근본경험이 함축하고 있는 풍부한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결여.

최동희, 해월의 종교적 기본방향, 한국사상 24, 1998 : 만사를 깨달은 경험

차옥송, 해월사상과 교인의 종교체험, 한국사상 24, 1998 : 몰아일체적, 생명긍정적인 신비체험

김경재, 최수운의 신 개념, 동학사상 논총 1, 1983

범재신론으로, 반대의 일치의 논리로 모순율을 극복한다.

#동학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역사주의적 태도로 복귀. 황선희, 동학사상의 인본주의적 성격, 동학연구3, 1998 최제우의 종교생활에서 후계자의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

언더힐은 베르그송에 기초해 능동적 신비주의를 주장: 신비주의적 체험이 현실에 개입하면, 창조

적 능동성과 개방성을 지닌다.
이돈화도 이런 관점에서 동학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성은 이돈화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종교적 미신과 봉건적 군왕주의 유습이 잔존
하지만 내면성의 활력을 사회 정치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을 도래하게 하는 실천성을 갖는다.

明體達用지학(호상학파 용어), 내외 합일을 추구.
이는 경제분위주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창조적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3) 표현의 철학

사변적 의미는 종교적 직관에 연원한다.
심정의 열매: 근본경험
회상적 사유-스승의 근본경험을 제자들이 기억

최제우의 경험

① 1860년 4월 5일의 체험

무한한 허공에 찬란하고 휘황한 빛이 가득 차서, 우주가 맞닿고, 한울과 땅이 얽히어. 대신사 이 것이 영부임을 알고...

② 철학적 정당화

(최제우) 불연기연(1863년 11월)에서,
현상은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기연이며, 세계는 합리적 인식 가능성을 벗어나므로 불연으로 보인다. ->60년 근본경험을 사변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

[이규성]

이 추론은 천주실의에서 나오는 우주론적 신 존재증명을 닮았으니, 아마도 수운은 이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장자, 열자, 주희의 태극론에서도 나오니, 무극대도의 존재를 이를 통해 추론한 것일 수도 있다. (주에서, 수운이 본 천서-성경으로 유추하기도 하는데- 는 도교 계통의 문헌이나 참위서일 수도 있다고 함)

<생명의 철학>

무궁을 외고 무궁을 노래하니 천지 일월성신 초목금수 인물이 한 가지로 그 노래에 화답하여

무극대도, 천령지령, 심령지령, 성령,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만물화생의 근본,
기는 현상계의 창조와 변화의 근원본체(기자, 造化之 元體根本야)

기의 운행은 강건하여 쉬지 않으며 창조적 변화는 현묘무위하다. (기운, 剛健不息, 조화, 玄妙無爲)
위대하다 천도의 영묘함이며, 일에 간섭치 아니함이 없으며 사물에 있지 아니함이 없나니, 만상이

다 천도의 표현이니라.

符圖는 심령의 躍動不息하는 모습을 표상

一氣 元氣 천지우주 絶代元氣 절대 性靈

우주는 일기가 역사한 것이며 일신이 활동한 것이라. 안전의 무수한 형상들이 비록 그 형체가 각기 다르나 그 원리는 하나이다. 하나는 곧 천이니, 천이 사물의 조직에 의하여 표현이 각기 다르다.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 조화와 투쟁, 우주 전체는 소통적 조화의 힘이 관류한다.

➔ 전통적 동양사상의 심학적 특징을 계승

일심만분(주렴계), 생지리(정이천)

평가: 이학적 사유

-각 종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성장하도록 하는 어떤 조직성이 미리 구조화되어 있다.

-개체에 구조화되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 양상이 생명력의 추동에 따라 서로 다른 종들 간에 각기 다른 성질과 형태들을 표현한다.

-하나의 생명 원리인 기가 응축하여 각 종의 생기를 형성하고 동시에 잠재적 이를 구성한다. 개체에 내재한 우주적 생기를 가진 종적 본성은 잠재적인 내적 구조로서의 이가 표출되면서 드러나게 된다.

최제우는 이러한 이학적 사고를 계승한다.

[심학, 이학, 기학, 최제우의 차이는?]

4 성령의 철학

<守心正氣>

“정신은 내면의 그윽하고, 빈 계곡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고 종일토록 어리석은 것 같고, 기운은 평정되며, 정신은 청명해진다. 新人幽谷 終日如愚 氣平心 心身清明矣”

침묵의 고독 속에서 絶對元氣에 접속한다.

<시대의 불안>

“천지도 불안하고 산천초목도 불안하고...개벽의 역운이 겪는 필연적 전쟁 상태, ..만물이 모두 전쟁하므로 인간의 전쟁도 없을 수 없다.”

이는 역사에 대한 묵시론적 언설

세계 불안은 실존적 불안이 아니다. 실존적 불안은 무를 매개로 초월자와 관계한다.

이는 오히려 개벽의 불안. 이 불안은 진리의 현현이 온전히 완성되는 시기에 대한 희망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기쁨의 철학>

개체는 영원성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실재성과 만족성을 갖게 된다.

개체는 상호 교류하는 공감적 관계 안에서 기쁨을 느낀다.

자기인식은 욕념에 지배되는 대립적 자기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내적 자기수렴 운동이라는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통의 관계를 치유, 상호 긍정에서 오는 쾌활성을 회복.

생명 원리는 쾌활의 원리, 젓먹이의 적자지심을 회복하는 것

평가:

이는 성리학의 기질변화를 의미. 이는 본연지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의 노력이다.

본연지성은 우주의 본원과 소통하는 광활한 본성을 의미.

이학은 이를 인간 마음에 내재하는 생명 원리로서 태극으로 해석한다. 만물과 일체를 이루는 소통성을 가진 것 즉 인이다.

동학은 우주적 소통성을 본질로 하는 본연지성을 계승한다. 봉건 가치 질서를 폐기할 수는 없었으나 그 위계적 불평등성을 자각적으로 넘어선다.

5) 개방성과 연대성

<새로운 윤리>

모든 관계를 신성의 현현으로 변형한다. 物物天 事事天, 人不離天 천불이인

개체에 내재하며 그들의 관계를 신성한 질서로 만드는 개체적 본질을 심령, 성령이라 한다.

개체의 본질은 하나의 거울이며 구슬이다

개체에 구현되고 있는 존재 능력은 영원한 생명에 본원적인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은 만유의 평등성에 대한 회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개체의 충실성->타자와 본질적으로 화의 관계를 이룬다.

경천, 경인, 경물, 寬恕와 仁恕

=>

내적 교감 속에서 타자의 개체적 존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 진정한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임재, 현존해 있는 절대자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호 존중의 덕, 공익의 덕

이는 자연과의 개방적 연대성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에 기초하면서

봉건적 폐쇄성과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도 넘어서는 급진적 진보성을 갖는다.

<구체적 설명>

①공경심: 경인, 경물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의 평등성이 전제된다.

공경심은 세속적 욕망의 호오감정에서 오는 유무분할을 넘어서는 비움의 실천에 의해 가능
태허 상태에서 절대자의 임재에 대한 직관이 가능한데 그로부터 존재를 공경하는 수동성이 나온
다.

수동성=최시형 영묘한 빛(靈光), 손병희 虛光심,
마음의 개활성과 생기를 의미,
이 수동성에서 활발한 즐거움이 나온다.
개방성은 정착 없는 無住의 자유

②소통성

개방적 자유가 갖는 근원적 고독은 대양의 경험 즉 자신의 본성이 자연의 통일적 본성과 상통하
는 것으로 경험한다.

“하루 아침에 드넓게 트여 진리를 관통하면 마음의 영적 가르침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체의 상통성을 알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감응의 연대성에 기초
이는 심령의 약동과 생명의 발용에 따른다. 內有神靈 外有氣化
그러므로 최시형은 기존 사회의 도망자이며, 새로운 사회의 혁명가이다.

공 세계의 정신이 동학을 단순히 주관적 해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영성주의적 부패를 방
지한다.

③ 공화주의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타인과 내가 胞胎를 같이 하고 사물과 내가 포태를 같이하는 전체적 진리
를 깨닫는다.”

-이는 장횡거의 사해 동포주의적 어휘를 활용한 것.

모든 종들 간의 연대적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
선은 평균적 공통성도 합리적 도덕법칙도 아니다.

동학혁명의 평등은 구체적 소유의 평등이라기보다, 모든 형태의 소유 관계가 예속의 조건이 되어
서 안 된다는 공리이다. 불균등 제도가 인간의 평등한 정신적 자주성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
다. 평등은 정치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변형하게 하는 초월적 이념이다.

자주성과 평등한 연대

추상적 합의가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대한 공감하는 긍정, 타자의 심층과 교류하는 사랑의 능력

이다.

천도교가 공화주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 연대성을 함의하고 있는 생명론적가치관이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치관은 자기변형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학은 역사의 생성과 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6) 때와 개혁

<개혁의 철학>

자신과 세계가 전체 생명 활동에 의해 창조된 형상임을 이해하면서 대 긍정의 시야가 열린다. 위대한 긍정의 순간은 세간으로 돌아오는 계기.

응고된 개체성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특권층의 부패와 백성의 원한에 사회적 병폐가 있다면, 조화의 원리는 사회적으로는 투쟁을 치유하고 심리적으로 원한을 용해하는 마음의 혁명성을 갖는다. 조화의 원리에 따라 최시형은 종교적 조직과 이를 통한 교세의 확산을 원했다.

최시형은 평화를 본질로 하지만, 조선 후기의 상황은 동학으로 하여금 물리적 혁명의 길로 나가게 했다. 결국 최시형도 혁명을 지시하게 된다.

이것은 평화적 조화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동학의 조화 원리는 기존 권력과 조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립에서 나오는] 고통을 극복한다는 변혁성을 갖는다.

<역사>

우주의 창조적 생성의 근본을 다시 회복한다.

“ 이 시대 운수는 천지개벽 초의 대운을 회복하는 잉태의 과정”

여기서 우주적 생명의 원리, 순환하는 역사적 때라는 개념을 전제한다.,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심개벽이니, 장래 물질 발명이 그 극에 달하고...이때에 도심은 더욱 쇠약해지고, 인심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일대 개혁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도를 천하에 포덕하여 창생을 널리 구원하는 것은 한울의 명하신 바이다.”

최시형, 이용구, 손병희의 대담

우리 도의 운수는 세계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니 與世同歸 ,->이용구, 근대화 식민지론에 빠짐도와 덕은 사람을 살리는 기틀이니->손병희

<참여의 철학>

무극대도의 역운에 동참하는 결단의 때는 인간의 참여적 실천에 의해 도래한다.

도는 인간이 현재의 때를 활용하여 형통하게 된다.

그의 순간은 무한한 영원성이 현존하는 질적인 시간이다.

현재의 시점은 미래의 한울 나라로 다가가는 시점들이 찰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현재의 활동은 이 시점들을 창조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7) 영적 코뮤니즘

-최시형의 樂天

이는 소극적 측면에서, 기존의 위계적 사회가 가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며, 자신 안에 내화되어 있는 억압의 심리구조를 탈각하는 경험이다. 적극적 측면에서 인간과 사물의 존재에 대한 긍정의 느낌이다. 만유는 천의 표현, 모든 것이 신성한 자기 완전성을 보유한다. 공경심과 寬仁의 덕을 형성한다. 존재의 긍정은 마음의 개방성에 근거하며 모든 개체를 상호 침투적인 투명한 관계로 경험한다.

-대생명의 진실은 融和相通

회심하여, 생명을 기쁨으로 향유하면 성령이 자발적 표현되어

이는 생활양식으로 표현된다.

=>개인의 원자화라는 고립과 사회의 계급분열이라는 폐쇄적 관계를 개방적 관계로 해체한다.

영적 코뮤니즘의 인력에 의해 추동되는 삶

공경, 공동체, 철저한 민주주의

부르주아 자유주의: 추상적 인권을 보장, 그러나 소유 계급의 국가의 명령이 존재한다.

동학은 경물, 경인, 용화상통의 가치를 실현.

개인은 신분은 물론이고 계급 분할의 질서에도 속하지 않는다. 개인은 국가의 사법적 권위에 기대어 생존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본래성과 우주적 생명 원리가 동일성을 자각하는 동시에, 인류와의 내적 동일성을 자각하는 새로운 인간”

-영적 코뮤니즘은 제도적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다. 成功 不居

미래의 희망을 대망하는 시간 안에 살게 된다.

최제우의 시문

“산 밖에 다시 산이 보이고 물 밖에 또 물을 만나도다.

안타까지 봄소식을 기다려도 봄빛은 마침내 오지를 않네

...오지 아니하면 때가 아닌 찾이지, 비로소 올 만한 절기가 이르고 보면, 기다리지 아니해도 자연히 오리라”

이상향

생명철학적 관점과 존재론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체와 개방적 전체성의 통일적 완성

초월적 이념이며, 제도와 인습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가능성에 살게 한다.

최시형

“대도 현현의 시기”

“모든 산이 생명의 질푸름으로 가득 변하고, 도로에 비단을 펼칠 정도로 문명이 개벽된 때, 모든 나라와 교역하는 때”

이런 물질 개벽은 인신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경물의 정신에 따라 생명 긍정의 개방적 영성이 실현되는 인심개벽의 바탕 위에서 물질 개벽이 전개되는 시점이 희망의 그 때이다.”

“만국의 병마가 아국 강토 내에 도래한 이후 물러가는 때”

8 결론

동학 혁명 평가

-무지한 관리의 압박과 몽매한 정부의 존재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일어난 운동

-민중 대 부자의 학살이 일어나게 된 계급 투쟁

이돈화 <신인철학>에서

동학은 정부와 외세의 억압을 벗어나려는 정치적 자유와 양반 계급의 착취를 일소하려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 소유를 둘러싼 계급 투쟁을 더 높은 인문주의적 가치와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동학의 한계

박은식, 흥학설에서 동비의 의혹은 민심이 우매한 까닭

한국통사에서, 비천한 무리배

한국독립운동혈사에서, 양반의 압제와 관리의 탐학에 분격. 평민의 혁명.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많고, 거동도 난폭하고 기강이 없었으니, 정치개혁을 하는 것은 그들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구습을 파괴하는 데에는 남음이 있었다.

C 이돈화의 사상

1920 천도교 청년회 만들고 개혁을 창간, 동학의 이론화와 신문화운동에 힘썼다.

김기전, 박래홍, 김형준과 함께 동학의 근대화 및 서양철학 연구.

1923 잡지 신인간 창간

중국 신청년에 비교.

1)문화운동의 철학>

일본 1910-1920 대정 생명주의 시기, 생의 철학을 도입

신칸트 학파 중심

이돈화,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 개벽 4호, 1920년 일본철학자 구와키 켄요쿠의 세계 개조의 철학적 기초를 요약 발췌.

문화주의는 이타론적 논리¹

개혁의 문화활동은 일본의 문화운동과 달리 식민지적 정치 경제적 상황을 주시하는 반제국주의적 노선을 근거에 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선택적 활용이었다.

러셀의 동아시아 방문 1920년

이돈화는 개벽 1921년 5월 호에 <사상계의 큰 별, 버트란드 러셀을 소개함> 발표.

러셀의 사회 개조의 원리1916, 자유의 길1918에 기초

소유충동에서 창조충동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이돈화 <최근 사회의 신현상을 보고 도덕심의 수립을 욕망함> 1921. 5

러셀의 창조충동=수운주의와 부합한다.

수운의 사상은 전 조선민족의 사상 개척자이며 전 세계 인류의 사상 개척자이다.

이돈화 <속 인내천 연구>(1920)

구로이와 루이코의 종교론: 인격신은 인지 불충분한 시대의 종교. 이돈화 역시 인격신에 대한 비판->범신론을 옹호.

그러나 구로이와의 이신론은 거부. 범신론을 인내천주의로 대체하려 했다.

¹이규성은 프랑스 차이의 철학은 신칸트주의의 이타성의 현대적 버전이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그러나 차이의 철학은 하나의 저항적 문화운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탈 영토화 운동과 문화 콘텐츠나 지적 장식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렇게 된 것은 차이의 철학이 정의와 평등이라는 동일성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백성의 의를 구하는 조선 유가의 지적 전통과 접맥되지 못한 데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람성주의=각자가 신이 되는 것.

우주의 위력과 감능을 사람 자기 중에 체인하여, 사람 자신의 권능으로써 모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한다.

신학적 목적론을 반대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 자유가 완성된다는 문화적 이상주의.

낙천적 활동주의

2) 사람성주의

30년대 문화주의에서 인격주의로 발전=>신인간을 제시.

신의 속성=인간의 속성. 포이어바흐 옹호

“현실 시대 사람은 이상과 사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나온 모든 이상을 사람 자기들의 고유능력의 발휘라 하여 그것의 실현을 노력하는 시대니, 이 시대 인류는 사람 자기생활의 욕구를 의뢰와 기원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협동과 실행에 호소하며 탄식과 회의에 머물지 않고 희열과 자각에 의하여 모든 이상을 사람 자기들이 손수 건설하는 시대에 이르렀다.”<시대정신에 합일된 사람 성 주의>개벽 5권, 1921

스피노자의 내재성의 철학, 자연적이며 창조적인 힘으로 신성에 기초

사람성주의에서 사람성자연주의로.

창조충동의 표현,

인간의 심령은 삼라만상의 활력과 소통. 무한창조의 힘으로써 무한의 개척을 실현

=> 사람성 자연주의.

“개벽이라 칭하며 개조라 말할지라도 다만 인류의 영력이 자연에 대해 작용해가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4) 대지의 철학 선언과 분위론

베르그송의 진화와 니체의 능동성의 결합

창조적 자발성과 생의 도약

대지에 충실하려는 생성의 사상

1920 개벽 3호, 개벽철학 선언

오인은 신기원을 선언하노라.

형제들아 대지에 충실하지라...대지를 모독함이 일대 죄악임을 명심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우리를 포용하는 대지는 우주 대신비의 일대 결정체이니 .. 인류는 그 중 뛰어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심기를 고요히 하여 대지의 가슴 속에 들어가면, ..사특한 기운이 없는 희열과 쾌함을 느끼는 동시에 곧 바로 대우주의 신비 그 가야금 줄 자기의 창조적 변화의 근원에 닿아, 출생 그 찰나의 그 순수와 같은 대순수를 맛볼지니,

..모든 생명체는 다 같이 땅 어머니의 하나의 태 속의 소산인 동시에 그들은 확실히 우리 형제라

는 가장 진지한 느낌을 얻으며

...천지와 그 변화와 성장을 나눈다는 광대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최후의 종교는 창조적 진화의 원리

이는 다윈의 수동적 진화를 능동적 진화의 원리로 전환하여 나약하고 속물화된 최후의 현대인을 극복한 초현인을 지향한다.

중세 초월주의->근대 허무주의->인내천 사상

내재적 생성의 철학

동학은 삼교합일

역사의 발전

신본위->영웅본위->자본본위->인간본위

자본과 인간의 대립

이제 자본본위가 인간 본위로 전환한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으로 도성덕립이 된 자.

계급의식은 도덕적 동기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양심적 동기를 동반할 때 혁신과 개조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국가 절대주의->국가 상대주의->민족상대주의, 인류대왕국의 이상 세계

=개성의 왕국, 사해동포주의

D 종합 평가: 철학적 의의와 체용합일

동학사상의 현대적 의의

①

초월 신->과학주의->허무주의->내재적이고 능동적인 생명원리로 스피노자의 실체론의 부활, 생철학적 조류, 니체와 베르그송

동학사상을 새신비주의로 규정

동학: 인간은 신의 표현.

그러므로 세기말의 비애를 극복.

②

공리주의와 결합한 인본주의는 허무주의를 낳는다. 존재를 도구화하고 군사화하는 것이 삶의 일반적 조건이 되었다.

최시형: 기술문명, 제국주의의 재앙,->세계 불안의 분위기

영원성과의 단절이 원인

무극대도에 대한 참여, 생성에 대한 긍정의 마음으로 전환.

③ 약동불식-> 갑진 개화운동과 3.1운동, 신문화운동의 사상적 원리가 되었다.
감각적 경험주의 비판, 개념적 사변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반대, 개방성의 경험에 의거,

④ 저항적 언대성과 개혁의 시간관이 결합된다.

우주적 생성에 참여
생기가 인간을 통해 새롭게 상승
개혁의 시대가 열린다.

개방적 소통은 의회민주주의의 평균치를 구하는 통계적 사고와 무관하며, 합의를 통해 일반성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⑤
생명철학은 함석헌의 사상으로 전개된다.

내유신령, 외유기화
=>제도적 변형을 위한 자율적 조직화를 본질적으로 함축한다.
조직화란 영혼의 자발성과 자유의 활력이 객관적 활동으로 표현되어 우애의 협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시대 상황과 맞물려 무장항쟁으로 변형되어 강화된 운동
동학혁명은 공공성의 군사적 변형
동학혁명은 동학조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 때를 앞당기려는 동학 내 행동파의 실천에서 나온다.
동학의 이념과 조직화에는 물리적 혁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폭발적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내적 자기 변화를 본체로 하고, 새로운 관계 양식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창조를 발용으로 보는 체용합일의 이념.

전통 성리학을 계승

실학파의 개혁론이 서술된 경세유표 별본이 전봉준과 김개남에게 전수되었을 것이다.

(최익한의 실학파와 정다산(1955)에 의거

전봉준 심문록

동학에는 마음을 닦는 것 외에 협동일치, 결당의 요지를 찾을 수 있다.